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補氣 처방에 대한 연구

- 번역 및 『古今名醫方論』과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金成煥 · 李容範*

A Study on The Invigorative Prescriptions(補氣方劑) in 'The Elimination & Supplement about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刪補名醫方論)', of 'The Golden Mirror of Medicine(醫宗金鑑)』

- focus on translation & comparative study with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 on Ancient and Modern Times (古今名醫方論)' -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Kim, Seung-Hwan · Lee, Yong-Bum

『The Golden Mirror of Medicine(醫宗金鑑)』 was compiled by the medical officers of the Qing government, headed by Wu-Qian(吳謙).『The Elimination & Supplement about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刪補名醫方論)』, a collection of notes written by famous scholars, is one part of 『The Golden Mirror of Medicine(醫宗金鑑)』.

Through the translation and comparative study of invigorative prescription(補氣方劑) in 『The Elimination & Supplement about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刪補名醫方論)』 of 『The Golden Mirror of Medicine(醫宗金鑑)』 with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 on Ancient and Modern Times(古今名醫方論)』, we confirmed that many sentences of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 on Ancient and Modern Times(古今名醫方論)』 were quoted, but that most of the text was not quoted as the same: it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In organization, invigoration prescriptions are placed at the head of the chapter, indicating their importance. In classification, prescriptions for reinforcing middle-jiao(中焦) and replenishing qi(補中益氣湯類 方劑) were usually included in the invigoration prescriptions(補氣方劑), which is explained in chapter II, thereby clearly distinguishing between treatments of deficiency of qi(氣虛) and combining it with the sinking of qi of middle-jiao(中氣下陷).

Key Words : invigorative prescription(補氣方劑),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刪補名醫方論),The Golden Mirror of Medicine(醫宗金鑑),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 on Ancient and Modern Times(古今名醫方論)

I. 序 論

清代 吳謙 등이 편찬한 『醫宗金鑑』은 乾隆 17년 (1749)부터 淸의 太醫院에서 醫學生의 교과서로 채택 될 정도로¹⁾ 당시에 많은 영향을 끼친 저작이다. 『醫宗金鑑』은 『傷寒論』 『金匱要略』에 대한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고 분량도 전체 서적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²⁾, 그 뒤를 이어서 『刪補名醫方論』이 나오는데, 『刪補名醫方論』에는 임상에서 활용되는 주요 처방들에 대한 중요 의가들의 方論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 『醫宗金鑑』이 한국에서도 많이 읽혀지고 있고, 특히 역대 주요 의가들의 방론이 수록된 『刪補名醫方論』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번역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刪補名醫方論』이 『古今名醫方論』과 내용이 거의 같다는 점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비슷한가에 대하여는 아직 연구된 바 없다. 『古今名醫方論』은 清代 羅美가 지은 것으로 1675년에 간행되었고, 『醫宗金鑑』은 1742년에 간행되어, 『醫宗金鑑』의 간행시기가 약간 늦다.

『刪補名醫方論』卷一의 처음 부분에는 獨參湯 參附湯 生脈飲 保元湯 四君子湯 香砂六君子湯 등 補氣 처방이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刪補名醫方論』의 번역 및 『古今名醫方論』의 내용과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의 첫 단계로서, 補氣처방 부분을 번역하고, 『古今名醫方論』의 해당 조문과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그 내용의 유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醫宗金鑑』 『刪補名醫方論』卷一의 독삼탕 삼부탕 생맥음 보원탕 사군자탕 향사육군자탕 등 補氣처방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번역하고, 『古今名醫方論』의 유관 조문과 그 내용을 비교하여, '내용비교'의 항에서 다음과 같이 4등급으로 분류하였다.

- 1) '내용같음' - 『古今名醫方論』의 내용과 같은 경우. 문장 중 일부가 다르고, 문자상에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수정 보충된 내용이 없고 내용상에 큰 차이가 없으면, '내용같음'으로 평가하였다.
- 2) '수정보충' - 『古今名醫方論』과 내용이 거의 같으나, 加減法 方論 등의 기재에 있어서 수정 혹은 보충한 것이 있으면 '수정보충'으로 평가하였다.
- 3) '내용다름' - 『古今名醫方論』에 인용된 方論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내용다름'으로 평가하였다.
- 4) '없음' - 『古今名醫方論』에 없는 경우, '없음'으로 평가하였다.

2. 底本

『醫宗金鑑』: 吳謙 等編, 魯兆麟 等 點校,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古今名醫方論』: 羅美 著.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3. 句讀와 해석

句讀는 底本을 따랐으나, 일부 저자의 견해와 다른 부분은 저자의 견해대로 하였다. 해석은 逐字번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의역을 하였다.

* 교신저자: 李容範,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學敎室, 033-730-0668, ybl@mail.sangji.ac.kr

1) 홍원식, 윤창렬 편저. 중보 중국의학사. 서울. 일지사. 2001. p. 533.

2) 이광재. 醫宗金鑑 상한론주 태양편에 대한 연구. 원주.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 7.

III. 본 론

【원문】

獨參湯(독삼탕)

○治元氣大虛，昏厥，脈微欲絕，及婦人崩產，脫血，血量。○人參 分兩隨人隨證 須上揀者，濃煎頓服，待元氣漸回，隨證加減。

【集註】○柯琴曰：一人而係一世之安危者，必重其權而專任之；一物而係一人之死生者，大其服而獨用之。故先哲於氣幾息血將脫之證，獨用人參二兩，濃煎頓服，能挽回性命於瞬息之間，非他物所可代也。世之用者，恐或補住邪氣，姑少以試之，或加消耗之味以監制之，其權不重力不專，人何賴以得生乎？如古方霹靂散，大補丸，皆用一物之長而取效最捷，於獨參湯何疑耶！

【按】若病兼別因，則又當隨機應變，於獨參湯中或加熟附補陽而回厥逆，或加生地涼陰而止吐衄，或加黃耆固表之汗，或加當歸救血之脫，或加薑汁以除嘔吐，或加童便以止陰煩，或加茯苓苓水化生津液治消渴泄瀉，或加黃連折火逆衝上治噤口毒痢。是乃相得相須以有成，亦何害其為獨哉？如薛己治中風，加入人參兩許於三生飲中，以駕馭其邪，此真善用獨參者矣。³⁾

【해석】

○ 원기가 크게 허약한 것, 어지러워 쓰러지는 것, 맥박이 약해서 끊어질 듯 한 것과 여성이 하혈하거나 출산으로 혈액손실이 크거나 그로 인해서 어지러운 것을 치료한다. ○ 인삼의 나누어 먹는 회수와 용량은 환자와 증세에 따라 다르다. 모름지기 상품으로 가려 뽑아서 진하게 달여서 한꺼번에 먹는다. 원기가 점차 회복되는 걸 기다려서 증세에 따라 가감한다.

【集註】○柯琴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 전체의 안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면, 반드시 그에게 권한을 많이 주어 그 일을 전담하게 할 것이다. 만약 어떤 한 가지 약이 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마땅히 그 약의 복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 약 한 가지

만 사용하여 약력을 분산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先哲들은 기운이 끊어지려 하거나 혈액이 크게 모자라 위태로울 때, 오직 인삼만을 2냥 사용하여 진하게 달여서 단번에 먹게 해서, 잠깐 동안에 생명을 만회할 수 있었으니, 다른 약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이 처방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처방이 보익만 하므로 사기가 머무를까 걱정하여, 짐짓 조금씩 시험 삼아 사용하거나, 혹은 소모시키는 약으로 인삼의 약성을 감독하고 제한하게 하니, 인삼의 질병을 치료하는 권한이 약화되고, 약력이 질병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사람이 어찌 이러한 방법에 의지해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古方의 벽력산 대보환은 모두가 한 약물의 장점을 사용하여 효능을 얻는 것이 가장 빠르거늘, 독삼탕에 있어서는 어찌 의심한단 말인가?”

【按】만약 병이 다른 원인을 겹하였으면, 또한 당연히 그 기미를 따라서 변화에 적응하여야 한다. 독삼탕 중에 혹은 숙지황 부자를 가하여 補陽하면서 回厥逆하고, 혹은 생지황을 가하여 涼陰하여 止吐衄하고, 혹은 황기를 가하여 固表汗하고, 혹은 당귀를 가하여 血脫을 구하고, 혹은 생강즙을 가하여 구토를 치료하고, 혹은 동변을 가하여 陰煩을 그치게 하고, 혹은 복령을 가하여 水를 津液으로 化生시켜 消渴 설사를 치료하고, 혹은 황연을 가하여 火가 上衝하는 것을 꺾어서 噤口毒痢를 치료한다. 이는 약물들이 相得 相須의 작용을 하여 그 효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또 어찌 인삼 하나로 독삼탕의 작용을 하게 하는 데에, 배합된 다른 약물이 방해가 되겠는가? 예를 들면 설기는 中風을 치료하는 데에 三生飲중에 인삼을 한 냥 정도 가하여서 사기를 몰아내었으니, 이는 독삼탕을 정말 잘 활용한 경우이다.

【내용비교】

이 조문은 대부분 『古今名醫方論』과 내용이 같으나, 【按】에 약물가감이 비교적 상세히 보충되어 있다.
- 수정보충

【원문】

3) 吳謙 等編. 魯兆麟 等點校. 醫宗金鑑.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 269.

參附湯(삼부탕)

○治陰陽氣血暴奪等證。○人參 附子(製) 水煎服。

【註】先身而生，謂之先天；後身而生，謂之後天。先天之氣在腎，是父母之所賦；後天之氣在脾，是水穀之所化。先天之氣爲氣之體，體主靜，故子在胞中，賴母息以養生氣，則神藏而機靜；後天之氣爲氣之用，用主動，故育形之後，資水穀以奉生身，則神發而運動。天人合德，二氣互用。故後天之氣得先天之氣，則生生而不息；先天之氣得後天之氣，始化化而不窮也。若夫起居不慎則傷腎，腎傷則先天氣虛矣。飲食不節則傷脾，脾傷則後天氣虛矣。補後天之氣無如人參，補先天之氣無如附子，此參附湯之所由立也。二藏虛之微甚，參附量爲君主。二藥相須，用之得當，則能瞬息化氣於烏有之鄉，頃刻生陽於命門之內，方之最神捷者也。若表虛自汗，以附子易黃耆，名人參黃耆湯，補氣兼止汗。失血陰亡，以附子易生地，名人參生地黃湯，固氣兼救陰。寒濕厥汗，以人參易白朮，名朮附湯，除濕兼溫裡。陽虛厥汗，以人參易黃耆，名耆附湯，補陽兼固表。此皆參附湯之轉換變化法也，醫者擴而充之，不能盡述其妙。⁴⁾

【해석】

○ 음양과 기혈이 갑자기 없어진 증세 등을 치료한다. ○ 인삼 부자(법제). 물에 달여 먹는다.

【註】 몸보다 먼저 생겨난 것을 '선천'이라고 하고, 몸보다 나중에 생긴 것을 '후천'이라고 한다. 선천의 기운은腎에 있으니, 부모가 준 것이며, 후천의 기운은脾에 있으니, 음식이 변화된 것이다. 先天之氣는 氣의 體가 되는데, 體는 가만히 있는 것을 주관한다. 그러므로 태아가 태 속에 있으면서, 모체의 호흡에 의지해서 氣를 기르니, 정신활동은 잠잠되고 그 작용기전은 아직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후천지기는 氣의 用이 되는데, 用은 움직이는 것을 주관한다. 그러므로 형체를 낳은 이후에, 음식의 도움을 받아 몸을 기르니, 정신활동이 발현되고 움직이는 것이다. 하늘과 사람은 德이 부합되어, 先後天의 두 기운이 서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후천지기가 선천지기를 얻으면 발

생하는 작용이 그치지 않고, 선천지기는 후천지기를 얻어야 비로소 변화작용이 끝이 없게 되는 것이다. 만약 기거생활이 신중하지 못하면 腎을 상하고, 腎을 상하면 선천지기가 허약해질 것이다. 음식이 규칙적이지 않으면 脾를 상하고, 脾를 상하면 후천지기가 허약해질 것이다. 후천지기를 보충하는 데 인삼만한 것이 없고, 선천지기를 보충하는 데 부자만한 것이 없으니, 이것이 삼부탕이 立方된 이유이다. 腎脾 두 내장의 허약함이 경미하거나 심한 정도를 따라 인삼과 부자의 용량을 조절한다. 두 약은 相須작용을 하여 반드시 사용하지만 하면 일정한 효험을 얻게 되니, 응급상황에서 순식간에 氣를 만들어 내고, 짧은 시간 안에 命門 內에 陽을 생기게 하여, 처방 중에서 효험이 신비할 정도로 가장 빠른 것이다. 만약 表虛하여 自汗하면 부자를 황기로 바꾸고, 이음을 인삼황기탕이라고 하는데, 氣를 보충하고 겸해서 汗을 그치게 한다. 皮를 쏟아서 陰이 없어졌으면, 부자를 생지황으로 바꾸고, 이음을 인삼생지황탕이라고 하는데, 氣를 튼튼히 하면서 겸하여 陰을 구한다. 寒濕으로 四肢厥冷 汗出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인삼을 백출로 바꾸는데, 이를 출부탕이라 한다. 이 처방은 除濕하면서 겸하여 속을 덥힌다. 陽虛하여 四肢厥冷 汗出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인삼을 황기로 바꾸는데, 이를 기부탕이라고 한다. 이 처방은 陽을 보충하고 겸하여 表를 튼튼히 한다. 이 모든 것이 삼부탕의 변방이다. 의사가 이러한 원리를 더욱 확충하여 응용한다면, 그 미묘함을 일일이 다 서술할 수 없을 것이다.

【내용비교】

이 조문은 『古今名醫方論』에는 喻嘉言의 方論을 인용하여 芪附湯 朮附湯 參附湯 등 3처방을 함께 비교 설명하고 있어, 그 내용이 여기와는 다르다. - 내용다름

【원문】

生脈飲(생맥음)

○治熱傷元氣，氣短倦怠，口渴出汗。○人參 麥門冬 五味子 水煎服。

4) 吳謙 等編. 魯兆麟 等 點校. 醫宗金鑑.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 269.

【註】經云：大氣積於胸中，則肺主之。夫暑熱傷肺，肺傷則氣亦傷矣。故氣短倦怠而喘咳也。肺主皮毛，肺傷則失其衛護，故汗出也。熱傷元氣，氣傷則不能生津，故口渴也。

是方君人參以補氣，即所以補肺。臣麥冬以清氣，即所以清肺。佐五味以斂氣，即所以斂肺。吳琨云：一補一清一斂，養氣之道備矣。名曰生脈，以脈得氣則充，失氣則弱。李杲謂：夏月服生脈飲，加黃耆甘草，名生脈保元湯，令人氣力湧出；更加當歸白芍，名人參飲子，治氣虛喘咳，吐血衄血，亦虛火可補之例也。⁵⁾

【해석】

○ 열로 원기를 손상하여, 호흡이 짧고(氣短) 노곤하며, 입이 마르고 땀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 인삼 맥문동 오미자. 물로 달여 먹는다.

【註】『內經』에 ‘호흡으로 들어온 공기는 가슴속에 쌓인다.’고 하였으니, 폐장이 이를 주관한다. 일반적으로 暑熱은 폐장을 손상하는데, 폐가 손상되면 氣도 역시 손상된다. 그래서 호흡이 짧고 노곤하며, 혈떡거리며 기침한다. 폐장은 皮毛를 주관하는데, 폐가 손상되면 모공을 보호하는 기능을 잃게 되어서 땀이 나는 것이다. 열은 元氣를 손상하는데, 氣가 손상되면 진액을 생성할 수 없어서 입이 마른다. 이 처방은 인삼을 君藥으로 함으로써, 補氣하여 補肺하고, 맥문동을 臣藥으로 함으로써, 清氣하여 清肺하며, 오미자를 佐使藥으로 함으로써, 氣를 수렴하여 斂肺한다. 吳崑은 “한 가지는 補하고 한 가지는 淸하며 한 가지는 斂하니, 氣를 기르는 방법이 구비된 것이다. 生脈이라고 이름 지었으니, 맥이란 것이 氣를 얻으면 충만하고 氣를 잃으면 약하기 때문이다.”라 하였고, 李杲는 “여름철에 생맥음을 먹을 때 황기 감초를 더하면 생맥보원탕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기력을 솟아나게 하고, 다시 당귀 백작을 더하면 인삼음자로 氣虛한 喘咳와 吐血 衄血을 다스리니, 또한 虛火도 補할 수 있다는 예이다.”라 하였다.

【내용비교】

이 조문은 『古今名醫方論』에는 생맥산으로 되어 있고, 方論은 柯琴의 문장을 인용하여 仲景의 通脈復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내용다름

【원문】

保元湯(보원탕)

○治男婦氣虛之總方也。嬰兒驚怯，痘家虛者，最宜。○黃耆三錢 人參二錢 甘草一錢 肉桂 春夏二三分 秋冬六七分 右四味，水煎服。

【集註】○柯琴曰：昔東垣以此三味能瀉火補金培土，爲除煩熱之聖藥，鎮小兒之驚，效如桴鼓。魏桂巖得之，以治痘家陽虛頂陷，血虛漿清，皮薄發癢，難灌難斂者，始終用之。以爲血脫須補氣，陽生則陰長，有起死回生之功，故名之爲保元也。又少佐肉桂，分四時之氣而增損之，謂桂能治血以推動其毒，扶陽益氣以充達周身。血內泣，引之出表，則氣從內托；血外散，引之歸根，則氣從外護。參者非桂引導，不能獨樹其功。桂不得甘草和平氣血，亦不能緒其條理，要非寡聞淺見者能窺其萬一也。四君中不用白朮，避其燥；不用茯苓，恐其滲也。用桂而不用四物者，以芍之辛散，歸之濕潤，芍之酸寒，地黃之泥滯故耳。如宜升則加升柴，宜燥加苓朮，宜潤加當歸，宜利氣加陳皮，宜收加芍，宜散加芎。又表實去者，裡實去參，中滿忌甘，內熱除桂，斯又當理會矣。

【按】元氣者，太虛之氣也。人得之則藏乎腎，爲先天之氣，即所謂生氣之原，腎間動氣者是也。生化於脾，爲後天之氣，即所謂水穀入胃，其精氣行於脈中之榮氣，其悍氣行於脈外之衛氣者是也。若夫合先後而言，即大氣之積於胸中，司呼吸通內外，周流一身，頃刻無間之宗氣者是也。總之，諸氣隨所在而得名，實一元氣也。保元者，保守此元氣之謂。是方用黃耆保在外一切之氣，甘草保在中一切之氣，人參保在上中下內外一切之氣，諸氣治而元氣足矣。然此湯補後天水穀之氣則有餘，生先天命門之氣則不足，加肉桂以鼓舞間動氣，斯爲備耳。⁶⁾

5) 吳謙 等編. 魯兆麟 等 點校. 醫宗金鑑.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 269.

6) 吳謙 等編. 魯兆麟 等 點校. 醫宗金鑑.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p. 269- 270.

【해석】

○ 성인 남녀의 氣虛를 다스리는 총괄적인 처방이다. 갓난아이가 잘 놀라고 겁이 많거나, 천연두의 虛證 환자에게 가장 적당하다. ○ 황기 3돈, 인삼 2돈, 감초 1돈, 육계 春夏 2-3푼 秋冬 6-7푼. 이상 네 가지를 물에 달여 먹는다.

【集註】 ○ 柯琴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적에 이동원은 이 세 가지가, 瀉火 補金 培土 작용이 뛰어나, 煩熱을 제거하는 聖藥이며, 소아의 놀란 것을 가라앉히는 데, 효험이 복재로 북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魏桂巖⁷⁾이 이 처방을 사용하였는데, 천연두환자가 陽虛하여 頭頂이 함몰되고 血虛하여 혈장이 묽고 피부가 얇고 가려워서 補陰하기도 수렴시키기도 어려운 것을 치료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원탕을 사용하였다. 그는 血脫에는 모름지기 補氣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곧 『內經』에서 말한 陽生陰長의 뜻으로, 기사회생의 공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보원이라고 처방이름을 지었다. 또 육계로 약간 돕게 하되, 사계절의 기후에 따라 양을 증감하는 것은, 육계는 血을 다스려서 그 독을 밀어내고, 陽을 도와 益氣하여 전신에 두루 퍼지게 할 수 있어서, 血이 안에서 멎치면, 그것을 이끌어 표층으로 내보내니, 즉 氣가 안으로부터 밀어내는 것(봄 여름에 육계를 조금씩 쓰는) 의미이고, 血이 바깥으로 흘러지면, 그것을 이끌어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니, 즉 氣가 밖으로부터 보호하는(가을 겨울에 육계의 양을 늘리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인삼과 황기는 육계가 인도하지 않으면, 그 약효를 혼자서는 발휘할 수 없다. 육계가 감초의 氣血을 화평케 하는 작용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역시 그 약효를 제대로 낼 수 없으니, 요컨대 식견이 부족한 자는 이러한 이치의 만의 하나라도 엿볼 수 없는 것이다. 四君子湯중에 백출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燥를 피한 것이고, 복령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津液이 滲出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육계는 사용하되 四物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천궁의 辛味로 인한

發散, 당귀의 濕潤, 작약의 酸寒한 성질, 지황의 泥滯한 성질 때문이다. 만약 마땅히 升發시켜야 될 경우이면 승마 시호를 가하고, 燥濕시켜야 될 경우라면 복령 백출을 가하고, 潤燥시켜야 될 경우이면 당귀를 가하고, 利氣시켜야 될 경우이면 진피를 가하고, 수렴시켜야 될 경우이면 작약을 가하고, 散布시켜야 될 경우라면 천궁을 가한다. 또 表가 實하면 황기를 가하고, 裏가 實하면 인삼을 거하고, 속이 그득하면 감초를 꺼리고, 내열이 있으면 육계를 제거하니, 이 또한 마땅히 이해하여야 한다.”

【按】 元氣라는 것은 太虛의 氣이다. 사람이 이것을 얻으면 腎에 저장되어 先天의 氣가 되니, 이른바 氣를 만들어내는 근원이요, 腎間動氣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脾臟에서 생겨나서 변화한 것은 後天의 氣가 되니, 곧 수곡이 胃로 들어가, 그 정미로운 氣는 맥속으로 다니는 營氣가 되고 그 날랜 氣는 맥 외로 다니는 衛氣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만일 先後를 합쳐서 말한다면, 곧 호흡한 공기(大氣)가 가슴속에 쌓여, 호흡을 맡고 내외를 소통시키며, 전신을 두루 흘러서 잠시도 쉬지 않는 宗氣라는 것이 이것이다. 총괄하면 모든 氣들은 있는 곳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元氣이다. 保元이라는 것은 이 元氣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다. 이 처방은 황기를 사용하여 밖에 있는 모든 氣들을 보호하고, 감초로 가운데의 모든 氣들을 보호하고, 인삼으로 上中下 內외의 모든 氣들을 보호하는 것이니, 모든 기들이 다스려지면 元氣는 충족된다. 그러나 이러한 약제만으로는 후천의 水穀之氣를 補하는 데는 충분한 효험이 있으나, 선천의 命門之氣를 만들어 내는 데는 부족하여, 육계를 가하여 신간동기를 고무시키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元氣를 보호하는 여건이 구비될 것이다.

【내용비교】

이 조문은 『古今名醫方論』에 나오는 柯琴의 인용문과 거의 같으나, 元氣의 개념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按에서 설명하고 있다. 柯琴은 元氣에 선천과 후천의 구분이 있고, 後天 元氣에 營氣 衛氣 宗氣를 배

7) 魏直. 16세기 明代의 의가. 痘疹에 정통함. 博愛心鑑을 저술. 전통의학연구소 편찬. 동양의학대사전. 서울. 성보사. 2000. p. 1701.

속하였고, 先天 元氣에 太陽膀胱之氣 太陰肺經之氣 少陽三焦之氣를 배속하였다.⁸⁾ - 수정보충

【원문】

四君子湯(사군자탕)

○治面色痿白, 言語輕微, 四肢無力, 脈來虛弱者. 若內傷虛熱, 或飲食難化作酸, 須加炮薑. ○人參 白朮 茯苓 甘草 各二錢. 加薑棗, 水煎服. ○加木香藿香葛根爲七味白朮散. 七味白朮散. ○加陳皮, 爲五味異功散. 五味異功散 ○加陳皮半夏, 爲六君子湯. 六君子湯. ○加藿香砂仁, 爲香砂六君子湯.

【集註】○張璐曰: 氣虛者, 補之以甘, 參朮苓草, 甘溫益胃, 有健運之功, 具沖和之德,

故爲君子. 蓋人之一生, 以胃氣爲本, 胃氣旺則五臟受蔭, 胃氣傷則百病叢生. 故凡病久虛不愈, 諸藥不效者, 惟有益胃補腎兩途. 故用四君子, 隨證加減, 無論寒熱補瀉, 先培中土, 使藥氣四達, 則周身之機運流通, 水穀之精微敷布, 何患其藥之不效哉! 是知四君子爲司命之本也. ○吳琨曰: 夫面色痿白, 則望之而知其氣虛矣. 言語輕微, 則聞之而知其氣虛矣. 四肢無力, 則問之而知其氣虛矣. 脈來虛弱, 則切之而知其氣虛矣. 如是則宜補氣. 是方也, 四藥皆甘溫, 甘得中之味, 溫得中之氣, 猶之不偏不倚之人, 故名君子. 本方加木香藿香葛根名七味白朮散, 治小兒脾虛肌熱, 泄瀉作渴. 以木藿之芳香佐四君入脾, 其功更捷; 以葛根甘寒, 直走陽明, 解肌熱而除渴也.

【按】本方加陳皮, 名五味異功散, 治氣虛而兼氣滯者; 再加半夏, 名六君子湯, 治氣虛而兼痰飲者; 再加砂仁藿香, 名香砂六君子湯, 治氣虛而兼嘔吐者. 此皆補中有消導之意也.⁹⁾

【해석】

○ 열굴색이 여위고 창백하며 말투가 미약하며 사지에 힘이 없고 맥박이 허약한 것을 치료한다. 만약 內傷하여 虛熱이 있거나,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신

물이 넘어오면, 炮制한 생강을 더하여야 한다. ○ 인삼 백출 복령 감초 각 2돈. 생강 대추를 가하여 물에 달여 먹는다. ○ 목향 곽향 갈근을 가하면 칠미백출산이 된다. ○ 진피를 가하면 오마이공산이 된다. ○ 진피 반하를 가하면 육군자탕이 된다. ○ 곽향 사인을 가하면 향사육군자탕이 된다.

【集註】○張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氣虛에는 甘味로 補하는데, 인삼 백출 복령 감초는 甘溫하여 益胃하니, 運化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공이 있고, 天地 陰陽의 조화로운 덕을 갖추었으니 君子라고 하는 것이다. 대개 사람의 일생은 胃氣로 근본을 삼는데, 胃氣가 왕성하면 五臟이 도움을 받고, 胃氣가 상하면 수많은 병이 쉴 새 없이 생긴다. 그러므로 모든 병중에, 오래되어 허약하면서 낫지 않고 이런 저런 약이 효험이 없을 때에는 오직 益胃와 補腎의 두 방법만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군자탕을 사용하여 증세에 따라 가감하니, 寒熱과 補瀉를 막론하고 먼저 中土를 복돋아 약의 기운으로 하여금 사방에 도달하도록 하면, 전신의 氣機가 운행되고 유통되어 수곡의 정화가 퍼지게 될 것이니, 어찌 그 약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겠는가? 이러한 것으로 사군자탕이 목숨을 담당하는 근본이 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吳琨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열굴색이 창백하다면 그것을 보고 그가 氣虛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투가 미약하다면, 그것을 듣고 그가 氣虛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지에 힘이 없다면, 그것을 물어보고 그가 氣虛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맥박이 허약하다면, 그것을 진맥해서 그가 氣虛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다면 마땅히 補氣하여야 한다. 이 처방은 네 가지 약재가 모두 甘溫하니, 甘은 中의 味를 얻은 것이고 溫은 中의 氣를 얻은 것이다. 비유하자면 편벽되거나 치우치지 않은 사람과 같으니 君子라고 하는 것이다. 본 처방에 목향 곽향 갈근을 가하면 칠미백출산이라 하는데, 소아가 脾虛하여 살에서 열이 나고 설사하며 갈증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목향과 곽향의 방향성 약재가 四君子湯을 보좌하여 脾로 들어가게 하니 그 功이 더욱 빠르고, 갈근은 甘寒하여 양명으로 곧바로 달려가서 살에서 열이 나

8) 羅美.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6.

9) 吳謙 等編. 魯兆麟 等點校. 醫宗金鑑.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 270.

는 것을 풀고 갈증이 나는 것을 제거한다.”

[按] 본방에 진피를 가하면 오미이공산이라 하니, 氣虛하면서 氣滯를 겸한 것을 치료하고, 다시 반하를 더 가하면 육군자탕이라 하는데, 氣虛하면서 겸하여 痰飲이 있는 것을 치료하고, 다시 사인 곱향을 더 가하면 향사육군자탕이라 하는데, 氣虛하면서 겸하여 구토하는 것을 치료한다. 이것들은 모두 보하는 가운데 消導시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내용비교】

이 조문은 『古今名醫方論』에는 張璠의 인용문만 있는데, 여기에는 吳崑의 方論이 보충되어 있다. 또한 『古今名醫方論』에 비하여 가감법이 자세하다. - 수정보충

【원문】

香砂六君子湯

○治氣虛痰飲，嘔吐痞悶，脾胃不和，變生諸證者。○人參一錢 白朮二錢 茯苓二錢 甘草七分 陳皮八分 半夏一錢 砂仁八分 木香七分。右生薑二錢水煎服。

[集註] ○柯琴曰：經曰：壯者氣行則愈，怯者著而爲病。蓋人在氣交之中，因氣而生，而生氣總以胃氣爲本。若脾胃一有不和，則氣便著滯，或痞悶噦嘔，或生痰留飲，因而不思飲食，肌肉消瘦，諸證蜂起，而形消氣息矣。四君子氣分之總方也，人參致沖和之氣，白朮培中宮，茯苓清治節，甘草調五藏，胃氣既治，病安從來。然撥亂反正，又不能無爲而治，必舉大行氣之品以輔之，則補者不至泥而不行。故加陳皮以利肺金之逆氣，半夏以疏脾土之濕氣，而痰飲可除也；加木香以行三焦之滯氣，縮砂以通脾腎之元氣，而膈鬱可開也。君得四輔，則功力倍宣，四輔奉君，則元氣大振，相得而益彰矣。¹⁰⁾

【해석】

향사육군자탕

○ 氣虛로 痰飲이 생겨 구토하면서 속이 답답하고,脾와 胃가 화평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변화된 증

세가 생긴 것을 치료한다. ○ 인삼 1돈 백출 2돈 복령 2돈 감초 7푼 진피 8푼 반하 1돈 사인 8푼 목향 7푼. 이상에다 생강 2돈으로 물에 달여서 먹는다.

[集註] ○ 柯琴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內經』에 ‘용감한 자는 氣가 운행하여 낫는데, 겁 많은 자는 사기가 들러붙어 병이 된다.’고 하였다. 대개 사람은 氣가 교차하는 가운데에서 있어서 氣에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生氣는 모두 胃氣로 근본을 삼는다. 만약 脾胃가 한번 불화하면 氣는 바로 막혀서, 혹은 답답하고 딸꾹질하며 구역질하고, 혹은 답음을 생겨 머무르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음식생각이 없어지고 살이 마르며 여러 가지 증세가 벌떼처럼 일어나니, 형체는 소모되고 邪氣는 불어나는 것이다. 사군자는 氣證 분야의 총괄하는 처방이니, 인삼은 天地 陰陽의 조화로 운 기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 백출은 中宮을 복돋우고, 복령은 治節작용을 하는 폐를 淸하고, 감초는 오장을 조절하니, 胃氣가 이미 치료되면 병이 어디로부터 오겠는가? 그러나 亂을 진압하고 바른 곳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無爲의 다스림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반드시 크게 行氣시키는 약재를 써서 보좌한다면, 補하는 것이 泥滯되어 운행하지 못함에 이르지는 않게 된다. 그러므로 진피를 가하여 肺金의 逆氣를 가라앉히고, 반하를 가하여 脾土의 습기를 소통시키면, 답음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며, 목향을 가하여 삼초의 정체한 氣를 운행시키고, 축사인으로 脾와 腎의 元氣를 소통시키면, 울체된 것이 열릴 수 있다. 사군자탕이 四輔를 얻으면 약효가 배로 증가할 것이고, 四輔가 사군자탕을 도우면 元氣가 크게 일어나 相得작용을 하여 더욱 효험이 좋을 것이다.”

【내용비교】

이 조문은 『古今名醫方論』과 같다. 사군자탕의 가감법에 육군자탕에 곱향 사인을 가한 것이 향사육군자탕이라 하였는데, 본 조문에서는 곱향이 목향으로 되어 있다. - 내용같은

10) 吳謙 等編. 魯兆麟 等 點校. 醫宗金鑑.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 270.

IV. 고찰

1. 편제상의 특징

『刪補名醫方論』 卷一에는 독삼탕 삼부탕 생맥음 보원탕 사군자탕 향사육군자탕 당귀보혈탕 불수산 사물탕 성유탕 지골피음 서각지황탕 사생환 당귀육 황탕 황기건중탕 쌍화음 인삼양영탕 귀비탕 묘향산 천왕보심단 산조인탕 주사안신환 등 모두 22개의 처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처방들은 대체로 補養方劑에 속하며, 특히 앞의 6개는 補氣方劑에 해당한다. 이는 『刪補名醫方論』이 補養方劑를 중요시 여겼고, 그 중에서도 특히 補氣方劑를 중시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흔히 補氣方劑로 분류되는 補中益氣湯類는 卷二에 수록하였는데, 이는 氣虛와 中氣下陷을 겸한 증상을 치료하는 방제를 별도로 분류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¹⁾

그리고 補氣方劑의 나열 순서가 중요한 약물 하나로 구성된 것부터 구성가지수가 많아지는 순으로 되어 있어 처방의 개념을 이해하기 편리하게 하였다.

『古今名醫方論』 卷一에는 『刪補名醫方論』에 수록된 補氣方劑가 다 수록되어 있으나 그 수록순서는 『刪補名醫方論』과 다르며, 또한 補中益氣湯도 卷一에 다른 補氣處方과 섞여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¹²⁾

11) 補中益氣湯類를 補氣劑로 분류한 것은 방제학(국윤범 외 12인 편저, 서울, 영림사, 2006, p. 10.)의 예가 있고, 理氣劑로 분류한 것은 의방집해(汪詒庵 著, 台北, 文光圖書出版有限公司, 民國 72, p. 129)의 예가 있다. 의방집해에서는 補養方劑에도 보중익기탕의 항목이 있으나, 처방 설명은 理氣劑에서 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理氣劑로 분류하고 있다.

12) 古今名醫方論 卷一에 수록된 처방은 순서대로 보중익기탕 황기건중탕 인삼양영탕 귀비탕 보원탕 사군자탕 향사육군자탕 사물탕 성유탕 당귀보혈탕 산조인탕 양심탕 독삼탕 자감초탕 소요산 생맥산 이중탕 기부출부삼부 二湯合論 청서익기탕 죽엽황기탕 청조구폐탕 당귀육황탕 영계출감탕으로 되어 있다. 羅美,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p. 1-2.

2. 方論의 특징

補氣方劑의 方論에서 주목할 점은 先天之氣 後天之氣 元氣 營氣 衛氣 宗氣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부탕의 주에서는 선천지와 후천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先天之氣는 부모로 받은 氣로 腎에 있고, 補하는 약으로는 부자가 제일 좋다고 하였으며, 後天之氣는 음식물이 변화된 것으로 脾에 있으며, 補하는 약으로는 인삼이 제일 좋다고 하여, 처방의 효과와 先天之氣 後天之氣의 개념을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보원탕의 按에서는 先天之氣는 元氣가 腎에 저장된 것으로, 氣를 만들어내는 근원이며, 後天之氣는 음식물이 脾에서 변화한 것으로 營氣 衛氣가 이에 속한다고 하였고, 또 先後天을 합쳐서 말한 것이 宗氣라고 하였다. 그리고 氣의 명칭은 있는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元氣라고 하였다. 이렇게 元氣의 개념을 설명하고, 元氣를 보호하는 보원탕의 약물구성을 바로 그 개념들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특히 『古今名醫方論』에 나오는 柯琴의 인용문 중에서 元氣를 선천과 후천으로 구분하여, 後天 元氣에 營氣 衛氣 宗氣를 배속하고, 先天 元氣에 太陽膀胱之氣 太陰肺經之氣 少陽三焦之氣를 배속한 부분을 삭제하고, 스스로 보충 설명을 가한 것이다.

요컨대 補氣方劑에 묘사된 方論의 특징은 先天之氣 後天之氣와 元氣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관련 처방의 효과와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이해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는 점과 어떤 의가의 方論을 인용하더라도 그 의가의 잘못된 점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보충 설명을 통하여 바로잡았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3. 『古今名醫方論』과의 내용비교

‘내용비교’의 항목에 나타난 『古今名醫方論』의 내용과 비교한 것을 살펴보면, 서문 및 補氣方劑 6개 조문 중에서 ‘수정보충’으로 평가된 것이 서문 독삼탕 보원탕 사군자탕 등 4개 조문이고, ‘내용다름’으로 평가된 것이 삼부탕 생맥음 2개 조문이며, ‘내용같음’

으로 평가된 것이 육군자탕 1개 조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본다면, 「刪補名醫方論」의 서문 및 補氣方劑 부분은 『古今名醫方論』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과감히 수정하고 보충하여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刪補名醫方論」 補氣方劑 부분을 번역하고 『古今名醫方論』과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편제상에서 補氣方劑가 가장 앞에 나오는데, 이는 補氣方劑를 중시하였음을 나타낸다. 또한 補中益氣湯類는 卷二에서 별도로 다름으로써 氣虛 처방과 氣虛兼中氣下陷의 처방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약물수가 적은 것부터 많은 것 순으로 기술하여 이해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2. 方論에서는 先天之氣 後天之氣 元氣 등의 개념을 분명히 하여 관련 처방의 효과와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이해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고, 또 方論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잘못된 점은 삭제하였으며 보충 설명을 가하여 바로잡았다.

3. 『古今名醫方論』의 내용과 비교한 것을 살펴보면, 서문 및 補氣方劑 6개 조문 중에서 '수정보충'으로 평가된 것이 서문 독삼탕 보원탕 사군자탕 등 4개 조문이고, '내용다름'으로 평가된 것이 삼부탕 생맥음 2개 조문이며, '내용같음'으로 평가된 것이 육군자탕 1개 조문으로, 『古今名醫方論』을 많이 인용하면서도 과감히 수정 보충하여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006.

<국내 단행본>

1. 홍원식, 윤창렬 편저. 증보 중국의학사. 서울. 일지사. 2001.
2. 전통의학연구소 편찬. 동양의학대사전. 서울. 성보사. 2000.
3. 국윤범 김상찬 박선동 박성규 서부일 서영배 신수식 이상인 이강천 이강희 외 3인 편저. 방제학. 서울. 영림사. 2006.

<국외 단행본>

1. 吳謙 等編. 魯兆麟 等 點校. 醫宗金鑑.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2. 汪詒庵 著. 醫方集解. 台北. 文光圖書出版有限公司. 民國 72.
3. 羅美 著.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參考文獻

<논문>

1. 이광재. 醫宗金鑑 상한론주 태양편에 대한 연구. 원주.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